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8.2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8 / 2



사진·김룡 '문 너머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처음 마음으로	11	호법 신장과 지혜의 길
길상사 시간여행	16	성북동 길상사
세계 일주 시작이 반	20	해를 따라 서역으로
시심청심	23	서시
모단 에세이	24	눈 오던 그날 밤
낮은 음계로	28	나에게 있어 펜은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31	호박죽과 눈 구경하는 서울나들이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36	소통을 방해하는 말 - 1
경전에서 배우는 지혜	40	입 안의 도끼로 자신을 찍다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8년 2월 1일 발행 / 통권 276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부산모임 : (051)898-2672~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글·법 정(法 頂)

서편제란 영화 보셨죠? 보고 눈물
들 많이 흘리셨습니까?

저도 아주 모진 사람인데 서편제
를 보고 눈물 흘리고, 또 오늘 불우
한 우리 이웃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
성입니다. 과일에 씨앗이 들어 있듯
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씨
앗을 지니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것
을 불성(佛聖) 혹은 영성(靈性)이라
고 이름합니다. 그 씨앗을 움트게
하고, 꽃 피우는 일이 삶의 의미이
고 보람입니다. 영성과 불성의 씨앗
을 움트게 하고, 꽃을 피우려면 우
리들 마음을 맑히는 일이 전제되어
야 합니다.

흔히 마음을 맑혀라, 마음을 비워
라 얘기합니다. 원래 종교적인 세계
에서는 지극히 관념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맑히고
비울 것인가. 절에 열심히 나가는 사
람 중에도 절에 안 나가는 사람보다
옹졸하고, 딱 막혀서 뭐 하나 배울
것이 없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관념
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관념적인 것으로는 마음이 맑혀지
지 않습니다. 물론 참선이나, 염불,
기도를 지극히 해서 마음을 맑힐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쪽이
예요. 자칫 잘못하면 관념으로 빠지
기가 쉬워요. 현실적으로 선행을 해

야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두루 착한 일을 행할 때 저절로 우리
들 마음이 열리고 맑아집니다.

불교 신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칠
불통계(七佛通戒)’라는 것이 있습니
다.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두루 하라.
절로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시절 인연이 오면 스스로 연꽃이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두루 착한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맑
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의 둘레도 점점
맑은 기운이 번져 갑니다. 마침내는
온 세상이 다 맑아질 수 있습니다.

가령 부처님과 예수님, 공자님 같
은 성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
의 맑은 마음은 메아리가 되고, 두
루 비추는 빛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인류 역사
상 안 계셨다면 현재의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너의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
예요. 한 뿌리에서 파생된 가지가 당
신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고, 그
의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지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마음이 하나이기 때
문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아파하니깐 우리도 아픔을 느낀 겁
니다. 이것이 마음의 묘리(妙理)예요.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그럼 선행이란 무엇일까요? 선행,
착한 일. 그것은 나누는 일입니다.
나눔다는 건 많이 가진 것을 그저
퍼주는 게 아니예요. 나눔이란 가진
사람이 이미 받은 것에 대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보상의 행위이고, 감사
의 표현입니다. 본래 내 것이란 없습
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이 우주
의, 법계의 선물을 잠시 맡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육바라밀(六波羅蜜) 가운데 첫째 가는 것이 보시 바라밀입니다. 보시란 나누는 겁니다. 또 바라밀이란 이 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는 일, 세상을 사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시 바라밀이란 세상을 사는데 제일 가는 덕이 보시, 곧 나누는 일이란 뜻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곱으로 커집니다. 반대로 괴로움과 슬픔은 나누면 몇분의 일로 줄어들어요. 나누는 일에는 이처럼 미묘한 울동이 따릅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 줍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좋게 만들고, 언짢은 관계는 우리를 언짢게 합니다.

세상 만물은 시간이 감에 따라 시들고 쭈그러듭니다. 새 차도 한 5~6년 타고 나면 폐차 직전에 이르지 않습니까? 거죽은 언젠가 늙고 허물어

집니다. 생로병사(生老病死)하고 생주이멸(生住異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영혼에 나이가 있습니까?

거죽에서 살지 않고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시들거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빨리 시들어요. 끝도 없는 것을 따르려니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자기중심에서 살면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든 시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존재 전체를 기울여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다음 순간 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서로의 마음이 맑아져,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려면 될 수 있는 한 작은 것, 적은 것으로써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큰 것과 많은 것에는 살뜰한 정이 가질 않아요. 늘 겪는 일이죠. 선물의 경우 너무 크고 많으면 받는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작은 것,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 아름답고, 고마운 것을 알게 되면 맑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맑은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못 되지만 제가 있는 곳은 궁핍하고, 거의 모든 것이 원시 상태예요. 하지만 그게 편해서, 그곳에서는 순수한 내가 존재할 수 있어서 지금 나그네처럼 머물고 있는 겁니다. 지난 겨울에 밖에는 눈이 내리고, 뒷골에서는 노루 우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씩 내 마음도 소년처럼 좀 부풀어 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묵은 편지들을 뒤적이다가 몇 군데 답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참 먹을 갈다가 편지 쓸 종이를 찾으니까 도배하고 남은 종이 사이에서 쪼가리 화선지가 두어 장 나와요. 다행이다 싶어 그걸 잘 다듬어서 편지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종이가 한정되어 있다 싶으니까 아주 조심해서, 잔글씨로 편지를 쓰면서 아주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서울에 나왔다가 지업사에서 한 20장의 화선지를 사갖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쪼가리 종이에 편지를 쓸 때의 그 오붓함, 살뜰함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많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어버립니다.

무소유란 아무 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꼭 필요불가결한 것만 가지려는 사람이 바로 무소유자입니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해 버

립니다.

친구 한 사람이 인도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서 친구는 옛 금속공예품 하나를 사게 됐어요. 상점 주인과 값을 흥정하는데 처음엔 1,000루피를 부르더라요. 그래서 친구는 시치미 뚝 떼고 100루피를 불렀다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150루피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리를 듣고는 친구가 '에라' 하면서 70루피라야 사겠다고 우겼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주인과 옥신각신 끝에 70루피에 물건을 샀대요. 그래서 좋아라 하니까 주인이 "Are you happy?"하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그만 친구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행복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집이나, 자동차, 가전제품, 심지어는 지식까지도 거기에 집착해서 행복을 얻으려 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칫 인간 존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아선 안 됩니다. 필요란 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욕구예요. 하지만 욕망은 없어도 좋을, 분수 바깥의 욕구예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하신 『유교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라.

만족할 줄 안다면 항상 넉넉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 뜻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그가 천당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건 늘 갈증 상태란 말이에요. 하지만 만족할 줄 알면 비록 가진 것은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냐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

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제 자신이 몹시 부끄럽고 가난하게 느끼는 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섰을 때가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적게 가졌지만 그 단순함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입니다. 과잉 소비와 포식 사회가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마구 사들이고, 쉬이 버리면서 귀한 줄을 모릅니다. 몸에 좋다면 무소불, 호랑이 뼈까지,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해서까지 마구 먹어대는 포식 사회 풍조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소비자란 말을 생각해 봅시다. 소비자,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존재란 겁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이, 무한한 창조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 어떻게 쓰레기나 만들어내는 존재,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불필요한 소비, 과다한 소비를 하기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려면 자연의 질서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몸이 쭉시고 아프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화창한 날이면 괜스레 우리 마음도 밝아집니다. 이게 다 우리가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낌없이 무상으로 베풀어 왔습니다.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논밭의 기쁨진 흙, 천연의 생수와 강물. 오늘 종일 말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자연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고마운 줄을 몰라요. 감사는 고사하고 함부로 더럽히고, 허물고, 끝없이 학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조차도 자기 동지는 더럽히지 않는데 인간이, 소위 문명했다는 인간만이 자기의 생활환경인 자연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앓고 있는 자연은 곧 우리가 병을 앓는 것이요, 자연의 신음 소리는 우리의 신음 소리임을 알아

호법 신장과 지혜의 길

클·텍 일(德日)

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소우주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든 자연, 허물어져 버린 자연에는 우리 인간들이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 죽어가듯 인간의 생명도 위협받기 때문이에요. 과잉 소비로 자연환경의 파괴를 부추길게 아니라 이제는 적은 것, 작은 것의 귀함, 소중함을 알아서 더 이상 자연이 병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나뭇잎으로써 맑은 기쁨을 얻으려 하고, 만족할 줄 알며, 소유는 꼭 필요한 것으로 스스로 제한하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지혜의 선택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삶을 거듭거듭 개선하고 심화시켜 가는 명상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전자는 지혜의 길이요, 후자는 자비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을 통해 우리는 본래부터 지녔던 불성과 영성의 씨앗을 틔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인연으로 저마다 자신이 지닌 그 귀한 불성의 씨앗으로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길 거듭 다짐합니다. 본래 청정한 우리 마음을 선행과 나눔으로 맑혀서 우리가 몸담아 사는 이 세상을 그리고 맑은 은혜 속에서 의지해 살다가 언젠가는 그 품으로 돌아가 영원히 안길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꿉시다.

여기에 옮긴 글은 1994년 3월 26일, 법정 스님이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말씀하신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모임 발족' 강론을 녹취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글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눈에 뭐가 들어갔나 싶어서 눈을 비벼도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시력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느낌이 들어 안경만 몇 차례 바꿔 사용했는데 드디어 어느 신경이 다했나 봅니다.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를 구입하여 오래 타게 되면 부속을 교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세포 조직이나 장기 조직들도 세월이 흐르면 에너지가 다하는 모양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굉장히 암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글씨가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안과를 검색한 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나이를 먹으면 오는 백내장 증세라는 겁니다. 시력을 되찾고 싶다고 하였던니 수술 날짜를 잡아주었습니다. 계약금을 걸어 놓고 절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 꿈에 엄청난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큰 호법 신장께서 갑자기 죽비로 저의 등을 치면서 그 안과에서 수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3년 4개월 동안의 행자생활을 마치고, 사미계를 받은 후 곡성 태안사라는 절에서 참선을 할 때의 경험입니다. 스님들은 3개월 동안 참선을 하는데,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면 가끔 산책을 하곤 합니다. 산책으로 산을 하나 오르고 난 후 그날 새벽에 너무 피곤하여 앉아서 졸고 있는데, 호법 신장께서 제 옆구리를 죽비로 확! 찌르는 거예요. 저는 제 앞에 있는 상판 스님께서 저를 경책하기 위해 죽비로 옆구리를 친 줄 알고 스님께 “제가 화두를 들지 못하고 졸아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저도 너무 피곤해서 졸았는데, 제가 왜 스님을 경책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법 신장께서는 우리 주위를 항상 옹호하고 경책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처음 죽비를 맞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지난주에 죽비를 한번 더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어느 신도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아! 스님 진작 말씀하지 그러셨습니까. 제가 아는 안과에 명의를 계시는데 거기 가시면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래서 그 안과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고, 지난 주 금요일에 원만하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의 책상 옆에는 염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많은 환자를 만나기에 자신이 불자임을 숨기고, 염주를 책상 속에다 넣어놓곤 하는데 이 원장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본인의 진료 책상에도가 정확하게 108염주를 놓고 환자들을 진료하는 겁니다. 제 진료 차례가 되었을 때 불자이신지, 어떻게 불교와 인연이 되었는지 하고 여쭙았더니 매일 기도를 하고 있고, 약사유리광여래불을 찾는다고 하시며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본인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니, 한의사였던 부모님께서는 좋은 삶을 살고 계시지만, 별로 재미있어 보이지는 않아 자신은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출가를 결심하고, 구도

의 열정을 가지고 전국의 사찰 순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제주도 남국선원의 혜국 큰스님을 만나 뵈었고 큰스님께서는 전국 순례는 할 만큼 하였으니 출가를 하라고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원장님 자신도 큰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불도를 닦아 보겠다고 다짐하며 곧 돌아오겠다고 말한 후 어느 절에 갔는데, 거기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짧은 기간에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출가 생각을 저 멀리 버리고 다시 혜국 큰스님을 찾아가 우선 결혼부터 해야겠으니 주례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 혜국 큰스님께서는 출가할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며 결혼식 주례를 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의사의 길로 접어들어 안과의사가 되었고 ‘보성’이라는 불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자이신 원장님을 만나게 되어서 환대를 받고, 수술을 잘 마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지혜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법 신장과 부처님께서 해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내가 정말 걸어가야 할 길과 걷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미 시절에 강동구 천호동에서 포교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천호동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점집 보살님이 있었는데 얼마나 돈을 잘 벌던지 자녀들이 전부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보살님이 딸의 차를 타고 가다 맞은편 차와 충돌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응급실로 옮겨지면서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죽거든 점집을 하거나 점을 보지 마라.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속이고 말을 쉽게 내뱉어서 죽음이 빨리 왔나보다. 나는 운명을 좀 더 빨리 가게 되니, 너는 결코 엄마가 떠나더라도

점집을 차리거나 점을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답니다. 점을 본다는 것은 정말 샛된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성을 바로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 다시 말해, 깨달음에 이르는 견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샛된 것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아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유교경》에서 “길흉을 한다거나 천문지리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중국의 황벽희운 선사께서는 선문답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에 집착해서 무언가를 구하지 말고, 법에 집착해서 무언가를 구하지 말고, 승가에 의지해서 무언가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샛된 것에 끌려 다니지 말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진리를 등불 삼아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점을 보는 행위와 점을 치는 행위에는 과보

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인도의 사위 대성에 계실 때, 목련존자와 낙다나존자가 밥을 빌리러 왕사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정수리가 파이고, 온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사람(중음신)이 지나갔고, 목련존자는 나무관세음보살을 말합니다. 낙다나존자는 목련존자가 왜 나무관세음보살을 말하는지 몰랐지만 목련존자는 신통이 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그 중음신(中陰神)이 바로 점을 치다 과보를 받은 남과 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사성에 들어와서 부처님께 “저희가 걸식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온몸이 불에 타고, 정수리가 쪼개져 있는 중음신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과보를 받았습니까?”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예전에 왕사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점을 보고 재산을 모았던 사람인데 죽은 후 극락세계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저렇게 중음신으로 춤고 배고픈 세계에 떠돌고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점을 보는 행위에 대한 과보를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무언가 대처를 하고 또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점을 제일 잘 본다는 천호동 보살도 자기 죽을 날을 모르고 교통사고로 저 세상으로 떠납니다. 삶과 죽음은 샛된 행위를 통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수상은 관상보다 못하고, 관상은 또한 심상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말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니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시간에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본성을 회복하셔야 합니

다. 내 본성을 회복하고 또한 그러한 것이 인연이 되어 참다운 불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샛된 길을 걷지 않을 것이며, 부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의지하고 진리의 법에 의지해서 세상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롭고 참다운 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발원드려 바랍니다.

- 불기 2561년 음력 10월 초하루 법문

(2017년 11월 18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2018년 불교강좌 개강 안내

- 경전반 : 3월 6일(화) / 오후 2시~4시
- 불교입문 : 3월 7일(수)
 - 주간: 1시 30분~3시 40분
 - 야간: 7시 30분~9시 40분
- 불교대학 : 3월 8일(목)
 - 주간: 1시 30분~3시 40분
 - 야간: 7시 30분~9시 40분
 (강의접수는 2018년 2월 5일부터 받습니다.)

성북동 길상사

글 • 홍정근

산과 물이 조화되어 밝고 따뜻하며 사람의 삶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땅, 하늘이 내려준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최고의 자연 입지를 우리는 흔히 '명당(明堂)'이라 부른다.

성북동의 풍수에 대해 고제희 대동풍수지리학회장(한국 최초로 국가가 인정한 풍수지리사)은 “서울 성곽이 있는 남쪽 능선이 마을의 ‘백호’가 되고, 정릉동과 경계를 이루며 동남진으로 뻗은 북악 스카이웨이 능선이 ‘청룡’이 돼 부지를 감싸는 형상”이라 기록한 바 있다.

‘완사명월형(完紗明月形)’ 명당, 즉 ‘밝은 달빛 아래 비단을 펼쳐 놓은 형세로 높은 벼슬아치나 부자들이 살 만한 땅이라는 것이다.

또 성북동은 ‘택리지(조선 후기 1751년<영조 27년>에 실학자 이종환이 쓴 인문 지리지)에 ‘마을이 들어설 지리적 조건이 뛰어난 곳으로 소개한 지역이기도 하다. 실제로 성북동은 풍광이 수려하고 환경이 쾌적할 뿐 아니라 시내와도 가까워 도심속 주거지역으로는 최상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매우 탁월한 곳이다.

길상사가 자리 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은 조선시대 창덕궁을 중심으로 한 동궐 영역 뒤편에 형성된 마을로 북한산 자락과 북악산, 한양 도성 사이의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성북동은 일제 강점기에 서울이 확장되고, 성곽이 허물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아직도 일제 강점기에 지은 도시형 한옥과 별장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명소로 일제 강점기 갑부였던 이종석 별장, 만해 한용운이 살았던 심우장, 시인 이태준 가족, 중앙박물관장을 지낸 미술사학자인 최순우 옛집 등이 있고, 조선시대 제사 시설 중 하나인 선잠단과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간송 미술관 등이 있다.

그러나 1968년 발표된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에서 표현된 것처럼 성북동의 이미지는 해방 후 성밖 언덕과 성북천 개울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서민주택(구 성북1동)과 근대화와 산업화로 개발된 북악산 자락 아래 남향을 하고 있는 고급주택(구 성북2동)이 있는 지역으로 서울의 양극화된 도시 모습을 극단적

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바퀴 휘 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부분

성북동에는 크게 4개의 고급 주택 단지가 있는데 대교단지, 성락원 마을, 평의 바다 마을, 학의 바다 마을 등이다. 평이니 학이니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은 70년대 이전만 해도 이곳에 새가 유난히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성락원 마을은 사적 제378호로 지정된 성락원을 중심으로 조성돼 있다. 성락원은 거의 원형으로 보

존된 전통 사저다. 입구에 들어서면 계곡을 타고 맑은 물이 흐른다. 이는 성북동이 원래 물이 흐르던 골짜기였음을 알게 한다. 지금도 옛 성북2동 동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의 이름은 ‘쌍다리다. 복개 전 개울을 가로질러 두 개의 다리가 놓여 있었던 곳인 까닭이다.

성북동(城北洞)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전후의 유적지가 많다. 그런데 이곳은 1970년까지만 해도 청와대 뒷산인 백악산(342M)에 가려져 지리적, 안보적 이유로 개발이 늦었던 곳이다.

그러한 성북동이 서울에서 몇 안 되는 부촌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1970년 12월 청와대 인근 삼청동과 성북동을 잇는 <삼청터널>이 개통되고, 정릉동을 잇는 도로가 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성북동의 10만 7천여 평에 이르는 넓은 땅을 소유한 교보생명 창업자 신용

호 회장이 토지를 분할매각하게 되는데, 이때 수많은 정관계 주요인사 및 외국공관들이 매입하면서 서울의 부촌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1960년 중반부터 시작된 요정정치 시기에, 성북동이 개발되고 정관계 인사들의 무대가 되면서 김영한 여사가 운영하던 대원각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정권 실력자들의 단골요정이 된다. 그리고 명성이 하늘을 찌르고 돈 꽤나 주무르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찾아오면서 삼청각, 청운각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요정의 하나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이곳은 삼청각에서 길상사에 이르는 길 이름이 <대사관로>로 명명(命名)되었고, 도로 곳곳에 해당 국가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으며, 도로 이정표에도 세계 각국의 이름이 나오는 이색적인 서울의 한

공간으로 변했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핀란드 등 30여 개의 대사관저, 외교관저가 있으며, 종교 시설 또한 유독 많은데 대략적으로 길상사 외 사찰이 15개, 수도원과 성당이 7~8개, 교회 4개 등이 몰려있다.

2010년부터 전통과 낭만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인사동과 삼청동, 북촌 한옥마을을 지나 현재 성북동까지 미치고 있다. 수연산방과 심우장, 북정마을, 삼청각 특히 길상사는 성북동의 대표 명소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천신일 회장이 40여 년간 수집한 1,250여 점의 돌탑과 불상 등으로 가득 찬 우리옛돌박물관까지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고, 역사문화지구로 조성되어 걷기 좋은 도시로 바뀌고 있다.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양반 문인들이 즐겨 찾던 과거의 성북동이 이제는 가난한 피난민들의 흔적과 부호들의 저택들이 함께 공존하는 동

네가 되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길상사에는 오늘도 끊임 없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누가 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누가 가라고 떠밀지도 않지만 그들은 하나둘 길상사를 찾는다. 맑고 향기로운 사찰 경내를 거닐면서 산책을 즐기는 연인도 있고, 홀로 앉아 명상에 잠기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진영각(眞影閣)에 들러 법정 스님의 숨결을 느끼며, 저 나름의 깨달음과 행복을 한아름 안고 돌아간다.

길상화 보살이 마지막까지 바랐듯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에 성북동 길상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쉼터가 되고 있다.

길상사가 활짝 열려 있는 한 우리는 엄청난 부를 찾거나 허망한 명예와 권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해를 따라 서역으로

글 • 강인철(작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쪽엔 꽃제비가, 중국 땅에는 국가 경비대가 있다. 인적조차 없는 순찰로를 따라 백두산에 올랐다. 당국의 허가는 물론 당 지도부 요원이 동승했음에도 시간마다 공안원의 검문검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숨죽이며 달려야 했던 고행 끝에 점심을 위해 30분쯤 머문 곳은 소위 '김일성 낚시터'라 소문난 물가로 건너편 북한과는 강폭이 불과 20여 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맑고 찬 물에서만 산다는 산천어가 생전의 김일성을 이곳까지 불러들였다니 그렇게 유별난 명소에서의 도시락이 꿀맛이어야 할 텐데 그건 아니었다. 주변은 이름 모를 산야초와 수목들이 천년의 침묵 속에 잠자

고 있었다. 두만강 발원지는 내川도 샘泉도 천지天地는 더욱 아니었다. 천지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든 다음 새롭게 솟아오른 물웅덩이들이 여럿 있었다. 경계비가 없었더라면 국경조차 헛갈릴 뻔했던 대단한 습지였다. 해지기 전에 이도백하까지 가야 한다며 서두르는 품이 꼭 적군에 쫓기는 신세처럼 긴박하고 초조했다.

다음 날 아침 천지에 올랐다. 인민군 복장의 젊은 기사 운전 솜씨가 심히 불안했다. 검은 구름이 오락가락할 때는 천지를 볼 수 없을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드디어 마루에 오른 순간, 그러나 우리는 왜 남의 나라를 거쳐 이렇게 멀리 돌아와야만 했는지, 그간의 원망願望이 원

망怨望과 원망遠望으로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천문봉(2,670m)에 올랐다. 흐렸던 날씨가 고맙게도 햇살이 퍼지더니 천지를 명청처럼 열어 주었다. 감격, 감동, 감사! 얼마나 기다린 순간이던가.

세계 일주 첫발을 내디디며 한 아버지 산하 어른께 소주잔을 들어 큰절을 올렸다. 먼길 부디 무탈하길 빌었다. 가다가 곧 중지하지 않기를 다짐했다. 할 말이 많았는데 더는 말이 막히고 말았다. 가자, 시작이 반이다. 해를 따라 서역으로 동서양 6대주 저 넓은 새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여행은 꿈을 행동으로 옮겨 보는 일상의 일탈이다. 하지만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그때 비로소 완성이라 했다.

실크로드

만주별을 밤낮없이 달린 기차가 장춘, 북경을 지나 서안에 닿았다. 서안西安을 기점으로 한 실크로드

는 황하를 거스르고 란저우와 자위관을 지나 타클라마칸과 고비사막을 건너야 한다. 사막 가운데의 여인국 하밀에서 잠시 쉬고 나면 저 유명한 둔황 막고굴의 혜초 스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나면 트루판에 닿는데 다음 여정 또한 만만찮은 우루무치까지이다. 트루판의 날씨는 어찌나 뜨거운지 차에서 내리 기조차 두려웠다. 온도계의 눈금이 섭씨 46도다. 저 멀리 화염산火焰山은 책에서 소개한 대로 붉은산 전체가 마치 불길에 휩싸여 훗훗 타오르는 것처럼 이글거린다.

당나라 현장 스님이 인도에 다녀온 여행담을 소재로 재미있게 풀어 쓴 소설 <서유기>의 주무대이기도 하다. 이야기는 삼장법사 일행이 인도로 가던 중 화염산의 폭염 불길에 막혀 절망에 빠지고, 그 산을 뚫고 지나갈 방도가 없어 난관에 부딪친다. 오직 해결책은 취운산 파초동굴에 살고 있는 나찰녀의 '파초선'으로



불을 끄는 수밖에... 손오공의 신출귀몰한 지혜와 저팔계, 사오정이 천신만고 끝에 우마왕을 제치고 마침내 요괴 나찰녀의 파초선芭蕉扇을 빼앗아 화염산의 뜨거운 불길을 단박에 잠재우고 무사히 스승을 인도로 모셨다는 성공 스토리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누구나 막막한 난관에 맞닥뜨려 절망하고 의기소침해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다. 마치 삼장법사 일행이 인도 여행길에서 화염산을 만나 오갈 수도 없이 절망했던 상

황처럼... 하지만 그들 일행이 목숨을 걸고 싸워 요괴를 물리치고 파초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매사 어려움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희망과 인내로 앞길을 헤쳐 나간 용기와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대장정 초반의 실크로드 횡단길. 기차, 버스, 트럭, 달구지, 낙타까지 동원했던 새로운 도전의 낯선 땅을 지나며 이들에게서 얻어들은 우공이산愚公移山の 우화조차 그냥 웃어넘길 옛 얘기가 아님을 명심 또 명심해 본다. 그렇지 않고는 감히 히말라야를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서이다.

...자고 나도 사막의 길/ 꿈속에서도 사막의 길/

낙타 타고 견노라면/ 황혼의 지평선에/ 석양도 애달프다...

강인철 •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에세이21」 가을호로 등단했고, 현재 문화유산국민신탁 홍보대사, 서울시교육청 재능기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5부자 라이브 인 USA》 《이름이 뭐길래》 등이 있다.

서시

글 •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1917~1945) • 시인. 중국 만저우 지방에서 출생하여 명동학교에서 수학하였고, 송실중학교와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일본 유학 후 도시샤 대학 재학 중, 1943년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福岡刑務所)에 투옥, 100여 편의 시를 남기고 27세의 나이에 옥중에서 요절하였다. 사후에 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출간되었다.

눈 오던 그날 밤

글 • 백신애(소설가)

육 년 전이다. 그때 나는 동쪽 서울(일본 수도인 도쿄를 한자 뜻을 살려 표현한 것)에 있었다. 그해에는 웬일인지 몇십 년 만이라는 대설이 내렸다. 나는 아파트의 삼층 일실—室에서 저물어 가는 눈하늘을 하염 없이 내다보느라고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서 있었다.

그때 건너편 양관洋館 삼층에서 역시 눈 내리는 이웃 지붕을 내다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오래전부터 나를 발견했던지 내가 그 여인을 바라볼 때 그는 나에게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양관과 내가 있는 아파트는 거의 백여 칸이나 떨어져 있었고 또 저물어 가는 저녁때라 그 여인의 얼굴

모습은 알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조금 서먹서먹하기는 하나 창을 열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흔들어 보였더니 그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긴 듯이 다시 한 번 손을 흔들어 보이고 창에서 사라졌다. 나는 어찌된 셈인지 가슴이 쓸쓸해졌으므로 창문에다 커튼을 내려 버렸다.

그 사이에 전등이 켜지며 복도에 조심스러운 발자취 소리가 들려오며 가끔 머물러 서는 기척을 느꼈으나 이웃 방 사람이겠지 하고 테이블 앞 의자에 걸터앉아 원고지를 펼쳐 놓았다.

조금 있더니 발자취 소리는 내 방 앞에 와 헤뜨러지며(원본에는 ‘헛크러지다’로 되어 있으나 발걸음이 제

자리에서 흩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헤뜨러지다’로 수정함) 얌전스러운 노크 소리가 났다.

나는 무심코 들어오라고 대답했더니,

“들어가도 좋을까요…….”

하는 소프라노의 음성이 대답했다. 나는 노크한 사람의 주저하는 태도에 잠깐 생각한 후 일어나 도어를 열었다.

“아!”

나는 도어를 열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내가 꿈에도 예기해본 적 없는,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금발을 가진 양녀洋女임에 질겁을 하듯 놀랐던 것이었다.

“들어오세요.”

라고, 이윽한 후 그를 방 안으로 들였더니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그 이유는 그가 일본인이나 조금도 다름없을 만큼 말이 유창한 것이다.

“나는 저편으로 옮겨 온 지 일주일이나 됐어요. 아침마다 당신이 창을

여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마다 손을 흔들어도 당신은 못 본 척하셨어요.”

양관 창에서 내다본 여인이 즉 자기라고 했다.

“아! 그랬어요? 나는 오늘 처음 당신을 발견했는데요.”

나는 그와 어느 사이인지 십년지 기같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 눈을 맞으며 우리 산보합시다”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가까운 히비야日比谷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앞까지 가서는 둘이 함께 발을 멈추었다.

“무서워라…….”

그는 갑자기 나에게 바짝 다가서며 인적이 없는 공원 안을 기웃거렸다.

나는 여기까지 눈을 맞고 걸어오는 동안 흠뻑 감상에 잠겨 있던 터라 그의 어깨를 껴안았다. 그리고 눈물을 감추며 애달픈 설희雪姬의 이야

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설희! 그는 나이가 나보다 한 해 위였으나 몸집이 나보다 무척 작아서 나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그의 사랑하는 이는 모 사건으로 사형을 당하고 홀어머니와 가없이 살았는데 나는 그의 유일한 동무였습니다. 그는 항상 검은 루바슈카(러시아의 남자들이 주로 입는 민중의상. 깃을 세우고 앞가슴에서 단추를 여미어 허리를 끈으로 매는 헐렁한 옷)를 입고 내 가슴에 기대어, ‘언니! 나는 춘희를 사랑한답니다. 나도 춘희처럼 되렵니다. 아니 나는 춘희보다 설희가 되렵니다. 함박눈이 펄펄 소리 없이 땅 위에 쌓일 때 나도 소리 없이 가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스스로 설희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 역시 춘희처럼 가슴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설희가 재작년에 정말 눈 내리는 밤 소리 없이 먼 암흑의 나라로 사라져 갔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이 이국 여인

은 바로 가슴을 헤치고 흰 단추가 목까지 달린 새까만 블라우스를 나에게 보이며,

“언니!”

하며 감격에 떨리는 듯 나를 불렀다. 나는,

“오!”

하는 감탄과 함께 그의 블라우스의 스타일이 그 전날 설희가 즐겨 입던 루바슈카와 비슷함에 놀라며 행여나 설희의 영혼이 살아남아 아닌가 하여 등허리에 찬 땀이 쭉 흘러 내렸다.

“과연! 나는 내 영감이 들어맞아요. 당신은 반드시 나에게도 유일한 동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흰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 백이이란 성을 가진 당신을 친하게 되고, 설희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설희가 또한 나와 운명이 같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을 언니라고 부르겠어요.

당신은 나를 설희라고 불러 주세요. 정말 정말 나는 설희라고 이름을 고치겠어요.”

하며 그는 무슨 설움이 가득 차오른 듯 내 어깨 위에 이마를 비벼 대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친 채 묵묵히 서 있으며 그 여인이 설희같이만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얼른 이 생각을 물리치려고 안전지대 위로 옮겨 섰다.

그러나 그는 무언에 취한 듯 내 곁으로 자꾸 다가서며,

“미스 화이트! 아니 언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동안 눈이 자꾸 내려서 우리가 눈 가운데 포옥 파묻혀 버렸으면…….”

하고 그는 커다란 눈을 반짝였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옷 위에 쌓인 눈을 서로 바라보는 사이에 가로등에 펄펄 내리는 눈발이 마치 우리를 눈 속에 파묻으려는 듯 싶었다. 이윽고 함께 걷기 시작했을 때 나의 가슴은 이국 정서로 가득해지며 남의 나라를 방황하는 듯 노스텔지어의 마음은 자못 설레었다.

〈여성〉, 1938년 1월

* 출처 : 모단 에세이 / 방민호 엮음

백신애(1908~1939) • 소설가. 필명은 박계화(朴啓華), 백무잠(白武岑). 경상북도 영천 출생으로 대구사범학교 감습과를 졸업했다. 여성동우회, 여자청년동맹 등에 참여했고 조선일보사 신춘문예의 제1회 당선자다. 32세의 나이에 위장병으로 요절했다. 주요 작품으로 〈나의 어머니〉 〈꺼레이〉 〈낙오〉 등이 있다.

나에게 있어 펜은

글 * 전 민(작가)

편지를 쓴다.

“밥풀꽃이 피었던 자리에 새잎이 돋고 연록의 담쟁이덩굴 위로 햇살이 흐른다. 이처럼 화사한 봄은 아직도 나를 철이 덜 든 어린아이로 만든다. 지금 넌 다시 온 계절의 유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흔하고 흔한 게 휴대전화며 인터넷 메일이지만 가슴 속 내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펜만 한 게 있을까. 때로는 떠난 스물을 돌아오게도 하고 세상의 견우와 직녀를 위해 오작교 노릇을 하기도 하는 펜. 입안에서만 맴돌 뿐 터져 나오지 못하는 말을 펜은 잘도 풀어낸다. 마음 안의 무늬를 기품 있게 담아내는 펜의 속성을 아는 이는 삶에 덤 하나를 엮고 사

는 것이나 다름없다.

살다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을 때, 간혹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싶을 때, 변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는 건 한 자루의 펜뿐이다. 성에 차지 않는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나 어찌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게 되는 날, 나는 펜을 들어 꼭꼭 마음을 눌러 쓴다. 내가 바라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다고. 나 요즘 이렇게 즐겁게 산다고!

고향에는 아직도 나의 갈래머리 열일곱 살이 산다. 아랫목에 놓인 누룩을 때만치며 어깨를 주물러 달라시던 할머니의 시름과, 한밤중 바람 소리에 이끌려 토방에 내려섰을 때

가슴으로 철렁 쏟아지던 별들의 말과, 그 느낌을 편지에 적어 펜팔로 사귀 친구에게 띄워 보낸 일하며, 달 밝은 밤엔 등잔불의 심지를 돋우고 앉아 뒷산 부엉이의 울음이 어땡고, 적막한 산골의 밤이 어땡고 하는 따위의 일기를 썼더랬나. 그땐 삶이란 순간이 이뤄내는 창극과 같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이들의 학습이 기대에 못 미쳐 속이 상할 적에도, 결혼기념일이 아니고 결혼 애도일이 되어버린 스산한 날에도, 내 부글거리는 속을 잠재우고 다독인 것은 한 자루의 펜이었다. 그렇게 소용돌이치는 가슴의 말을 노트에 쏟아놓고 나면 들끓던 감정이 잦아들고는 했다. 그런 뜻에서 펜은 나에게 진정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

세상살이 가장 힘든 일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닐까. 때로는 내 모든 속내를 보인다는 부끄럼이 일긴 하지만, 미세한 축끝

에 나만의 향기를 묻혀 삶을 조각한다는 자부심이 들기도 한다. 그 인연 나를 드러내도 좋을 아름다운 오만이 들어있으므로.

말은 하면 흠어지고 글은 쓰면 쌓인다고 했다. 아직 멀었지만 펜을 통하여 푸념도 하고 자랑도 하면서 내 자신과 만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다. 그런 시간은 나를 영원으로 이끈다.

부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울곧게 지켜나가야 할 무엇,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 일으키는 펜이야말로 내 삶의 버팀목인 것이다.

펜은 무기보다 강하다. 신영복 선생이 감옥에 있을 때 담배 껍이나 손수건 같은 곳에 써서 담장 밖으로 내보냈다는 글 모음집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세상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 시인 박노해가 수감 중에 톱톱이 쓴 시로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또 어땡던가. 펜이 쇠덩이를 녹일

수 있는 방증일 터이다.

내가 펜과 친한 것이 아이들은 싫지 않은 모양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문구점에 들러 메모지나 필통, 바인더 같은 용품을 사가지고 와 앞에 내놓으며 사기를 높인다. 펜 끝이 무더 변변한 글 한 편 내놓지 못하지만 여태 그걸 놓지 못하는 까닭은 부끄러운 허물과 감당키 힘든 고민을 풀어놓고 보속을 받는 기분이 좋아

서다. 게다가 내 지적 허영을 채우는데 펜만 한 게 어디 있으랴.

사는 것이 힘겹고 외로울 때, 또는 비밀스런 감정에 휩싸여 가슴에서 뚝뚝 북이 울릴 때 나는 펜 한 자루를 들고 사막으로 간다. 그리고 외친다.

‘이 말 좀 들어봐요! 이 말 좀 들어봐요!’

전민 ·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경영학을 공부했다. 「수필과 비평」과 「에세이문학」으로 등단했고, 맥심문화회(현, 동서문학)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에세이문학 편집위원,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북촌시사, 담쟁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 장학 대상 : 일반고, 특성화고, 과학고 학생 (5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입금됨)
- 장학 내용 : 수업료, 운영지원비 전액
- 추천자 : 회원, 지부 사무국,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접수 마감 : 2018년 3월 16일(금) 우표 소인까지
- 선정 발표 : 2018년 4월 4일(수)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자세한 내용은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공지 참조
 ※ 장학금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호박죽과 눈 구경하는 서울나들이

글 · 권오분

아침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바람도 없고 너무 조용히 내려서 방안의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밖에서 눈이 내리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언제부터 내렸는지 앞마당과 뒷마당이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흰색 중에서도 눈의 색깔은 언제나 포근해 보아서 평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조카가 깨어나지 않았으면 아무리 눈이 예쁘게 내린다 해도 이런 평화를 느낄 수 없었겠지요. 뇌염으로 의식을 잃고 여러 날 온 가족의 애간장을 태우던 조카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식구들은 갑자기 잔칫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출근했던 스물여섯 살 건장한 청년이 119에 실려 갔으니 우리 집은 며칠간 초상집이 되었던 셈이지요. 병이 나지 않은 것에 비하면 불행한 일이지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애길 들었을 때의 절망감이나 불안감에서 해방된 기분은 겪어 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보다는 ‘환희’라는 말이 더 적확하겠어요. 더구나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지내는 모범생이고, 나와는 여러모로 취향이 같고 식성이 비슷해서 아들만큼 귀한 조카였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는 것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며칠간 장식으로 밖에 두었던, 둥글게 잘생긴 늙은 호박이 추위에 얼었습니다. 바람이 닿는 바깥 부분이 멀쩡게 보였지요. 녹으면 음식을 만들 수가 없게 될 터이니 방안으로 끌고 들어와 토막을 내어 껍질을 깎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껍질을 벗기자니 힘이 들더군요. 벗기고 보니 속살의 색깔이 어찌나 선명하고 고운지 눈이 부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얼치기 호박으로 버려진 것을 주워 와서 누렇게 된 것인데도 제대로 즐기어서 익은 것과 별 차이가 없었지요. 호박의 부드럽고 미끌미끌한 속을 더듬으니 호박씨가 탱글탱글 영근 느낌으로 가지런히 붙어 있는 것이 만져졌습니다. 모든 열매의 씨앗 배열은 예쁘기 때문에 늘 가로 자르기를 해서 살펴본곤 했는데 여태껏 호박의 씨앗이 어떻게 속에서 영글었는지를 관찰해 본 적이 없었기에 무척이나 새로운 느낌이었지요. 예전에는 호박씨가 겨울철의 중요한 주전부리였는

데 먹거리가 흔하고 다양해진 데다, 껍질을 까서 파는 초록빛 예쁜 호박씨가 수입되어서 비싸지도 않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호박씨를 아랫목에 펼쳐 말리던 일은 먼 추억이 되었습니다.

호박씨를 말렸다가 화로의 잿불에 구워 하나씩 까서 입안에 넣어 주던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깔고 호박씨를 발라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신문지 위에 펼쳐 말리면서 어린 날 호박씨를 까 먹여 주던 아버지를 떠올리면 무척 행복할 것 같았고, 오랜만에 추억 여행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호박의 얼지 않은 쪽은 썰어서 실에 꿰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몽땅 떨구고 서 있는 목련 나뭇가지에 걸어 두었습니다. 회색빛 나뭇가지에 주홍빛깔 호박의 속살이 너무나 예쁘게 어울렸습니다. 잠시 후에 밖을 보니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더군요. 걸어 놓은 호

박 위로 흰 눈이 소복하게 앉아서 아름다운 설치 미술작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계속 내렸습니다. 언 것은 압력밥솥에 폭 삶아서 으깨고, 불린 쌀을 믹서에 한 줌 갈아서 굵은 소금을 조금 넣고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동생은 병원에 오는 일이 힘들다며 오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궁금해서 마음의 평안이 오히려 깨어질 것 같았어요. 보온병에 호박죽을 담아두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 사이에 마당에도 눈이 많이 쌓여서 도로에는 차가 다닐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찾길에 영화칼슘을 뿌리고 제설 작업을 한 덕분에 미끄럽지 않게 차들이 다닐 수 있었답니다. 이런 제설 작업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했지요.

찾길은 거무튀튀한 색으로 질척거리서 주변의 흰색 풍경이 더없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있

는 대학 캠퍼스와 공공 기관들이 모두 소나무로 조경을 멋지게 꾸며 놓은 덕분에, 이 동네의 겨울 풍경이 전보다 많이 멋있어졌습니다. 나를 태운 버스는 서울의 아름다운 길을 모두 돌아가면서 눈 내리는 날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멋스런 나무와 고풍스런 건물 위로 내려 쌓인 경치는 어느 영화의 장면들을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했어요. “착막한 겨울도 어느 날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답니다.”라고 귀엣말을 하는 겨울 요정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국의 산에서 뿔뿔히 온 내로라하는 잘난 소나무들이 눈을 맞으니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그림이나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풍경을 볼 때 얼마나 황홀할지 가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술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부러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나 온천장을 찾아가 지 않아도 눈 오는 날 시내를 버스로 돌아다니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의 교통 체계를 마음껏 칭찬했습니다. 대학가나 고궁이나 왕릉 주변을 지나는 버스로 환승을 하면 다섯 번까지 갈아 탈 수 있기 때문에 1천 원이면 몇 시간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뜨거운 홍차라도 보온병에 담아서 들고 나가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버스 안에 앉아 있는 동안 호박죽이 든 보온병의 따스함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의 담벼락을 지날 때는 '조선 시대 궁 안에도 이와 같이 눈이 내렸을 텐데, 그들도 나처럼 눈이 내리는 걸 행복하게 즐겼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편하게 시공간을 넘나들며 눈을 즐기는 내가 위대해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날씨가 추워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고 동생이 나를 나무라더군요. “걱정 마. 눈 보러 오느라고 나온 거니까. 밖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는 모르지?” 숲의 저쪽으로 갔다가 돌아온 조카가 싱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아무튼 우리 이모는 아무도 못 말려. 라는 소리 없는 말이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호박이기가 막히게 맛있는 죽이 되었으니 먹어 보라 이르고, 퇴근길에 병원에 들른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눈이 그쳤더군요. 눈을 제 몸에 매달아서 멋진 풍경을 보여 주었던 몇 시간 전의 가로수들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던 한 시간의 버스 여행 얘길 누군가에게 했더라면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분 씨, 또 꿈꾼 것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 아니야?” 다행히 우리 집은 아직도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밖에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

서 빨리 녹아버린 모양입니다.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겠지요. 그 가스를 마시고 사는 도시민들의 호흡기가 갑자기 불쌍하단 생각이 들 고요, 눈이 쌓이기는 할까요? 눈이 왔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맑은 공기를 내리기는 내릴까요? 나는 다시 환경 위하여 자동차를 버리고 걸어 다니 이 걱정되었습니다.

권오분 · 동네에서 밥 퍼주는 아줌마로 소문난 권오분 님은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 과거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오랫동안 글을 연재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글들을 주로 써왔다. <제비꽃 편지> <꽃으로 여는 세상>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공저) 등이 있다.

청바지 되살리기 운동



(사)맑고 향기롭게는 유행이 지나거나 안 입는 청바지를 의류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치가 큰 자원으로 인식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자연사업의 일환으로 '청바지 되살리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방치되어 있거나 버려려던 청바지를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류폐기물은 2008년 5만 677톤에서 2014년 7만 4361톤으로 6년 동안 32.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의류폐기물 중에서 도 청바지는 두껍고 튼튼하기 때문에 썩거나 태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원단으로만 보면 좋은 요소가 많아 재활용 가치가 크지만, 폐기할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내주신 청바지는 의류리폼 봉사자가 예쁘고 튼튼한 에코백으로 재탄생시켜 맑고 향기로운 가게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후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까지 도울 수 있는 '청바지 되살리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소통을 방해하는 말 - 1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1. '그 아이는 게을러서 정리를 못해'
2. '그 사람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말해.'
3. '네가 이럴 줄 알았어...'
4. '당신이 그렇지 뭐...'
5. '동생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6. '윗사람이 시켜서 거짓말을 했을 뿐이야.'
7. '전부터 해오던 대로 했어요. 원칙은 아니지만 해오던 것이라서...'
8. '주부라서 밥을 해야 하는 거야.'
9. '남자는 울면 안 돼.'
10. '여자인가 암전하게 행동하는 거야.'
11. '장남은 책임감이 있어야 해.'
12. '너는 참 잘하는구나.' / '참 멋있

구나.' / '너무 못했구나.'

13.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해.'

위 문장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소통을 방해하는 말'입니다. 흔하게 듣고, 말하는 문장이라고 생각되지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부모가 이런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고, 사회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통을 방해하는 말들은 듣는 사람을 위축되게 하며, 자존감을 낮추며, 자력을 키울 수 없게 하고, 다시 비난의 말을 만들도록 하고, 마음을 닫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방을 어질러 놓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보호자

가, '너는 참 게을러서 정리를 못하는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중학생의 마음으로 위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잠시 생각해보신 후 이어서 읽어주세요. 잠시 생각하셨지요?

'나는 게을러서 정리를 못하는 아이네, 이제부터 부지런한 아이가 되어야지.'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짐하게 될까요? 혹은 짜증난 말투로 '알았어! 치울게요.'라고 대답하면서, 속으로 '엄마는 맨날 저렇게 말해.'라고 비난의 생각을 하게 될까요?

비난받은 사람은 날카로운 상태가 되어 그 비난을 상대에게 다시 돌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힘도 없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더 비난하며 자존감을 낮춥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비난과 비판으로 얼마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지요? 높은 자살률이 그것을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비난의 말

을 일단 멈추십시오. 공감대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십시오. 정리가 안 된 방을 보면서(상황) 느낌을 말하시고, 바람을 말하세요.

방을 어질러 놓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이라고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보호자가, '나는 방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니까(상황) 답답하네.(느낌) 정리정돈이 된 방에서 네가 편안히 보내기를 바라거든(바람)...'

중학생의 마음으로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래의 짧은 줄에 3가지 느낌을 적어보세요.

느낌 _____

바람 _____

느낌 _____

바람 _____

느낌 _____

바람 _____

소통을 방해하는 말 1, 2, 3, 4번은 '도덕주의적 비판/비난'의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5번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는 기준이 되는 쪽과 당하는 양쪽 모두 힘들게 하는 말입니다. 6, 7, 8번은 '책임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 말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므로, 내 책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9, 10, 11번은 그 사회의 일반 이론이 만들어낸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12번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13번은 보호자 혹은 교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하기'입니다. 공감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명령을 질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질문은 명령으로만 움직이던 '인간로봇'을 생각하는 '인간'으로 만듭니다. 질문을 받으면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게 만들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질문입니다.

질문하기는 공감대화의 큰 첫 걸음입니다. '소통을 방해하는 말'을 공감 대화로 바꾸는 방법을 3회 연속으로 이어 적을 예정입니다.

중학생은 보호자의 말을 듣고 부끄럽거나, 짜증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울 수 있고, '내가 조금 후에 알아서 치우려고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답답하다는 말을 들어서' 짜증날 수 있고, '이 정도면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의 느낌과 다른 느낌을 적으셨다면 예민하고 깊은 생각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으신 느낌은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어떤 바람과 연결되었는지 생각하시고 오른쪽 긴 줄에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는 활동은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하는 법을 바꾸려면, 첫째로 기준에 하던 폭력대화를 멈춰야 하고, 둘째로 상.느.바.부.(상황-느낌-바람-부탁)를 생각하셔야 하고, 셋째로 실제로 말해보아야 합니다. 상.느.바.부는 꼭 순서대로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부터 말하시면 됩니다. 폭력대화를 하는 사회에서는 폭력대화가 그

물망처럼 연결되어 퍼져 나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폭력대화를 끊고 비폭력으로, 공감으로 대화를 시도한다면 그 자리부터 공감대화가 그물망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는 자리에 서십시오. 맑아지고, 그 향기를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시방삼세 제망찰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겠지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www.clean94.or.kr)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 후원해 주신 모든 기부자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과 법정 스님 글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3-129 (사)맑고 향기롭게

입 안의 도끼로 자신을 찍다

옛날 어떤 나그네가 라자그리하에 서 결식하다가 성문에서 새끼를 낳은 암소한테 떠받혀 목숨을 잃었다. 소 입자는 겁이 나 그날로 소를 팔아넘겼다. 소를 산 사람은 물을 먹이기 위해 소를 물가로 끌고 가다가, 뒤에서 소가 떠받는 바람에 그만 죽고 말았다. 소를 샀다가 뜻밖의 불행을 당한 그 집 아들은 화가 나서 그 소를 때려죽였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소의 고기를 차마 먹을 수가 없어서 장에 내다 팔았다. 어떤 시골 사람이 그 소의 머리를 사서 메고 가다가 자기 집에서 10리쯤 떨어진 나무 밑에 앉아 쉬게 되었다. 새끼줄에 매단 소의 머리를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는데, 그만 새끼가 끊

어지는 바람에 떨어지면서 나무 아래 쉬고 있던 사람이 뿔에 찔려 죽고 말았다. 이와 같이 그 소는 한꺼번에 세 사람을 죽였다. 라자그리하의 밤비사라 왕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괴이한 일이다 싶어 신하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뵈러 갔다.

“세존이시여, 실로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한 마리 암소가 세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슨 번고인지 까닭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죄의 값음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으니, 그것은 지금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그 옛날 세 사람의 상인이 이웃 나라로 장사하러 가서 한 외로운 노파 집에 머물렀소. 그들은 넉넉

하게 값을 치르겠다던 처음의 말과는 달리, 며칠 동안 편히 지냈으면서도 떠나올 때는 노파를 만만하게 보고 값도 치르지 않은 채 빠져 나오고 말았소.

노파가 밖에서 돌아왔을 때 장사치들이 보이지 않아 이웃 사람에게 물으니, 그들은 벌써 떠나갔다고 했소. 노파는 그럴 수 있는가 싶어서 수십 리 길을 걸어 그들의 뒤를 쫓아 갔소. 그들을 겨우 만나 숙박비를 요구하니, 장사치들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오늘 아침에 벌써 치렀는데 왜 또 달라느냐며 잡아땀소. 노파는 아무도 곁에 없는 외로운 처지라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소. 그러나 화가 치밀어 올라 그들을 이렇게 저주했소. ‘내가 지금은 가난하고 구차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다음 생에는 반드시 너희들을 만나 이 원한을 풀 것이다. 축생이 되어서라도 너희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말 것이다.’ 그때 그 노파가 바로 오늘

의 저 암소요. 소한테 떠받혀 죽은 세 사람은 숙식비를 떼먹고 달아난 그때의 장사치들이고.” 부처님은 다시 계승을 읊으셨다.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잘난 체 뽐내면서
 함부로 남을 업신여기면
 미움과 원한이 움을 틔다
 공손한 말과 부드러운 말씨로
 남을 높이고 공경하며
 맺힘을 풀고 욕됨을 참으면
 미움과 원한은 저절로 사라지리
 무릇 사람이 이 세상에 날 때
 그 입 안에 도끼가 생겨
 그로써 제 몸을 찍나니
 그것은 악한 말 때문이니라

〈법구비유경〉 언어품言語品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2018년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안내

천연화장품 강좌는 만들어 쓰는 약간의 불편함은 분명 있지만, 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만 끼치며, 내가 직접 만들어 쓰는 생태적인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실천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 격월로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에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화장품 강좌 특성상 참여 인원 수에 제한이 있는데, 최근 비회원 및 관광객의 참여가 많아 정작 본 모임 회원과 길상사 신도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본 모임 자연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후원회원(신규 회원 포함), 길상사 신도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1. 참여 가능 : 본모임 후원 회원(전년도 후원금액 3만원 이상), 길상사 등록 신도 / 본모임 신규 회원은 최초 후원금 납부로부터 3개월 경과 후부터 참여가능
2. 할인가 적용 : 회원 가입 후 후원하신 금액이 3만원 이상+3개월이 지난 회원만 할인가 적용됨
3.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4년간 동결했던 강좌 참가비 조정
4. 강좌 참가비 안내

짜수달	제품	용량	참가비	할인가	비고
1째 주	삼푸	250ml	12,000	10,000	1인당 4개까지
2째 주	로션	100ml	12,000	10,000	1인당 5개까지
3째 주	에센스	100ml	11,000	9,000	1인당 5개까지
4째 주	비누	1000ml	11,000	9,000	1인당 2개까지
	스킨	100ml	5,000	4,000	1인당 5개까지

5. 1인당 만들어 가는 수량은 초과가 불가합니다.(재료 관리, 형평성문제)
6. 해당 강좌는 본 모임의 일정, 공휴일, 강사의 사정, 참여 인원이 적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정 : 짜수달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길상사내 세계일화실(맑고 향기롭게 소모임방)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요

시민모임「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여러 회원,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해주시길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순수 모임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면 종교, 종파에 상관없이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바지 되살리기 운동

(사)맑고 향기롭게는 유행이 지나거나 안 입는 청바지를 의류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치가 큰 자원으로 인식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자연사업의 일환으로 '청바지 되살리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방치되어 있거나 버려려던 청바지를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청바지는 의류리폼 봉사자가 예쁘고 튼튼한 에코백으로 재탄생시켜 맑고 향기로운 가게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후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까지 도울 수 있는 '청바지 되살리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 구독 및 회원 가입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뜻으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발행하여 본 모임 회원 및 길상사 신도 가정에 우편발송을 해드리며, 군법당, 병원, 복지단체, 교도소 등에 꾸준히 무료배포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이 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나 사무국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원고 모집 안내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동,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가족 이야기 등 소중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써서 보내주세요.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그리고 독자 참여 지면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법인 사무국



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주시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가 채택될 시 귀중한 책 한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가지를 나누고 3월에서 11월 둘째 목요일에는 배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농협상품권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약 500가구에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 전화 말벗 자원활동

전화 말벗 자원활동은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

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이 기다려지는 의미 있는 자원활동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봉사팀원들과 함께 꾸준히 참여하실 뜻있는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활동은 노인 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밀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봉사자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에 입고되지 않는 소품들은 비정기 녹색나눔장터와 바자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한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주실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기증해주신 용품은 녹색나눔장터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전액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5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0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7일)/오후 1시 30분/다라니 다원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

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7, 24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회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동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 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임기 모임 : 매일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찻마음(소식지)발송 : 매일 초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식(자비 공양의 집), 매일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말벗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말벗봉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 3주 토요일
- **숲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대구, 경남, 광주모임은 지부로登記되어 있으며, 부산모임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설합동차레

- 일시 : 2월 16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접수번호 1~500)
설법전 (접수번호 501부터)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관음재일

- 일시 : 2월 9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축원이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8회차 기도가 1월 10일(수)에 입재되었으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2월 10일(토) 오후 8시 00분 ~ 2월 11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 일시 : 2월 2일(금) 오전 9시 50분 ~ 2월 4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정초기도

- 일시 : 2월 18일(일) ~ 2월 24일(토) 오전 9시 50분
- 금강경 독송 정초칠일기도 :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2월 3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지장 천일기도 2회차 회향

- 일시 : 2월 24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100일 사식은 9시 20분에 시작됩니다.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2월 3일(토) 오후 6~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지장 천일기도 3회차 입재

- 일시 : 2월 25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입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2월 2일(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2월 3일(토)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다라니기도	2월 3일(토)	저녁 6시	극락전
관음재일	2월 9일(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2월 10일(토)	저녁 8시	극락전
설합동차례	2월 16일(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정초기도	2월 18일(일) ~ 24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금강경 독송 정초칠일기도	2월 18일(일) ~ 24일(토)	오후 2시	극락전
지장 천일기도 2회차 회향	2월 24일(토)	오전 9시 50분	지장전
지장 천일기도 3회차 입재	2월 25일(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중고등 법회실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2018년 길상사 불교강좌 안내

경전반

- 개강 : 3월 6일(화)
- 시간 : 매주 화요일 2시 ~ 4시

불교입문

- 개강 : 3월 7일(수)
- 시간 : 매주 수요일
- 주간반 - 오후 1시 30분 ~ 3시 40분
- 야간반 - 오후 7시 30분 ~ 9시 40분

불교대학 9기

- 개강 : 3월 9일(목)
- 시간 : 매주 목요일
- 주간반 - 오후 1시 30분 ~ 3시 40분
- 야간반 - 오후 7시 30분 ~ 9시 40분
- 입학자격 :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불자님
- 교육과정 : 1년(2학기제)
- 강의 접수는 2월 5일부터 받습니다.
- 접수계좌 : 신한은행 100-025-929544 (길상사 불교대학)
- 문의 : 길상사 종무실 02-3672-5945 (입금후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3월 11일(일) / 오후 1시

법정 스님 입적 8주기 추모법회
 • 3월 13일(음. 1월 26일) / 오전 11시

장소 :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2018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일반고, 특성화고 학생과 한국 과학기술영재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과학고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받습니다.

- 장학 대상 : 일반고, 특성화고, 과학고 학생 (5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입금됨)
- 장학 내용 : 수업료, 운영지원비 전액
- 추천자 : 회원, 지부 사무국,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구비서류

① 추천서

- 추천서는 2월 8일(목)부터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천자 성명, 학생 정보 외 추천 사유 기재
- 학교 장학, 행정 담당자의 확인 필수

② 학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타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마감 : 2018년 3월 16일(금) 우편 소인까지
- 선정 발표 : 2018년 4월 4일(수)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문의처 : 02)741-4696(총무팀)
-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공지 참조
- 장학금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